

소득 줄고 대출 질적 악화... '채무 불이행·파산 신청' 속출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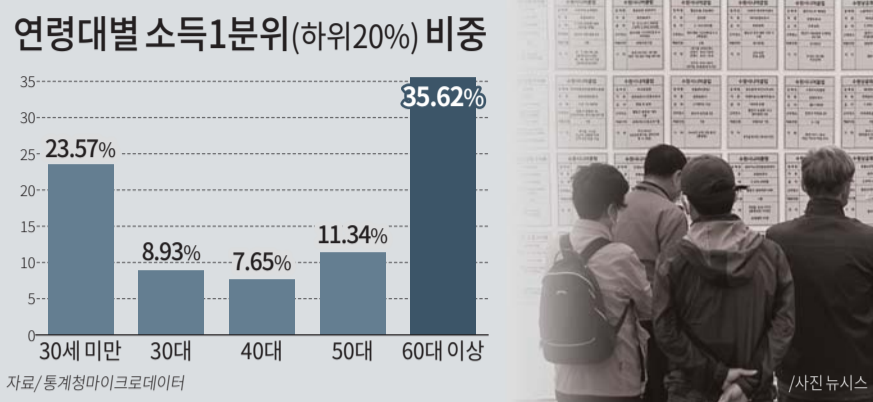
<下> 6070 세대

10명 중 3.5명 소득 하위 20% 분포
대출잔액 비중 30~50대보다 높아
"소비여력 감소로 빈곤층 전락 위기"

#. 60세 김모씨는 최근 건물 청소미화원으로 재취업했다. 3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모아 놓은 재산과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려했지만, 막내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는 막내아들은 취업이 어려워져 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모씨는 "은퇴할 때는 재취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아들취업이 늦어지면서 학비에, 주택담보대출, 또 생활비까지 더해져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명 중 3.5명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자녀 교육과 노후준비는 늦어지면서 빈곤한 6070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소득하위 20% 최다 분포
17일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35.62%에 달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소득 하위 20%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문제는 6070세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대출상환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은 집에 묶여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차주 및 대출 잔액을 봤더니, DSR이 40%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차주 비중 가운데 60~70대 이상의 경우는 4.3~12.7%였다. 30~50대 (5.2~12.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

비중은 60대(DSR 40% 이상)가 41.8%, 70대 이상이 44%로, 30~50대(20~30%)보다 높았다. DSR가 높은 차주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잔액이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가령 DSR가 40%라는 건 연소득 5000만원일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 파산자수 증가

여기에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까지 사라지면서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금융권에 몰렸다. 지난 2021년 말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은 22조3662억원으로 2019년 말(18조3862억원)과 비교해 21.7% 증가했다. 반면 2금융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2조6325억원에서 28조2413억원 증가해 총 24.8% 늘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대출이 거절돼 고금리인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갚을 능력에 비해 빚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3282명에서 2019년 11만8205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87만3938명에서 83만7767명

로 줄었다.

6070세대의 파산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3680명, 70세 이상은 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소득이 없고, 경기악화로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자리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60대 이상 차주의 소비 여력 감소는 잠재적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준금리 밑도는 코픽스 주담대-전세대출 차주 희비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 3%대 진입
전세대출 상단 여전히 5%대 상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어 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5%대를 상회하면서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여전하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7~6.79%를 나타내며 금리하단이 3%대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3.92%)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금리 변동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3.56%)보다 0.12%포인트(P) 낮은 3.44%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것은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를 4.09~5.49%에서 3.97~5.37%로 내렸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4.45~5.

65%에서 4.33~5.53%로 인하했다.

반면, 전세대출의 금리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4월 코픽스가 1.72%였던 당시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1.93~3.33%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코픽스 역시 3.56%로 동반 상승한 올해 4월에는 같은 상품의 금리가 3.77~5.17%로 올라갔다.

하지만 최근 코픽스가 하락해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반면,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5%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은행별 가산금리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1년 만에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7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차주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은행채 금리 하락, 시중은행들의 상생 금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건축 이전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상품을 설계할 때 금리인상분이 차주에게 100%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